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공군사관학교(공사)는 3월 12일 성무연 병장에서 '73기 생도 졸업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교육훈련을 수료한 190명이 졸업했으며, 외국군 수탁생도 5명을 제외한 185명이 소위로 임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관한 행사에는 졸업·임관자 가족·친지를 포함해 2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우등상·졸업증서·임관사령장·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학교장 식사, '1기생 첫 출격 기념 태극기' 전달식, 재교생 행진, 축하비행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행사에서는 졸업생들이 공사 선배들의 위국헌신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은 '1기생 첫 출격 기념 태극기' 전달식이 진행됐다.이번 행사에서는 공사 23기 선배



이자 31대 참모총장을 지낸 이계훈 공군전우회장이 73기 수석을 차지한 안주선 소위의 어깨에 태극기를 둘러 주고 꽃목걸이를 걸어 줬다.

안 소위는 담례로 졸업생들의 임관 다짐이 적힌 태극기 모양의 롤링페이퍼를 전달했다.//

공군 학군단 4곳 신설

공군이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예 공군인(人)을 양성하기 위해 4개 대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ROTC·학군단)을 신설했다.

공군교육사령부는 2월18일 경운대에서 창설식을 하고 학군단 신설을 알렸다. 공군 교육사가 올해 설립한 학군단은 경운대를 비롯해 백석대, 한경국립대, 청주대 등 4곳이다. 공군 학군단은 1971년 항공대를 시작으로 장교를 육성하는 한서대, 국립한국교통대, 경상국립대, 서울과학기술대, 숙명여대, 연세대와 부사관을 기르는 영진전문대



등 전국 8개 대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학군단까지 포함하면 모두 12개다.//

B-1B 함께...한·미·일 연합 공중훈련

한·미·일은 1월15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맞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비롯한 주요 항공전력을 동원해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

국방부는 이날 "올해 첫 미국 전략폭격기 전개하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등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된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훈련에는 미 공군 B-1B와 함께 우리 공군 F-15K,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등이 투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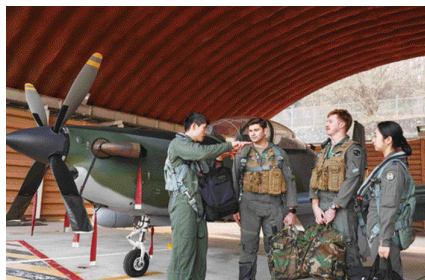
B-1B가 참가하는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은 지난해 11월 3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B-1B는 최고 속도 마하 1.25(시속 1530km)에 최대 1만2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폭격기다.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전개할 수 있다.//

공군, 올해 첫 한미 연합 쌍매훈련

올해 첫 '쌍매훈련(Buddy Squadron)'이 1월 21일부터 24일 까지 원주기지에서 실시됐다.

'쌍매훈련'은 한미 공군이 각자의 공중전력을 한반도 내 공군기지에 교대로 전개·시행하는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이다. 양국 공군 간 최신 전술을 교류하고, 전시 작전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영문명인 '버디(Buddy)'에서 알 수 있듯 양국 공군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1991년 '우정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첫발을 내디뎠고, 1997년 '쌍매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통상적으로 분기별 2회, 연 8회



훈련한다. 올해 첫 훈련에는 공군8전투비행단(8전비) FA-50 전투기, KA-1 공중통제공격기와 미 공군51전투비행단 A-10 공격기 등이 참여했다.//

2024년 공군을 빛낸 인물·단체 시상식

공군은 2월 3일 공군본부에서 이영수 참모총장 주관으로 '2024년 공군을 빛낸 인물과 단체'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군은 2001년부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군 발전에 기여하고, 위상을 드높인 개인·단체를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는 '전투력 발전' '조직운영 발전' '신지식·정보화' '희생·봉사' '체육·문화' '협력' '특별' 등 7개 부문에서 개인 3명과 단체 4개 팀을 뽑았다.전투력 발전 부문을 수상한 51전대는 적 순항미사일 감시·포착 등 공군의 실전적 공중 대응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

조직운영 발전 부문에서는 공군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가 영광을 안았다. 신지식·정보화 부문은 군수사령부 백승익 군무사무관, 희생·봉사 부문은 11전비 전대영 군무주무관이 차지했다. 2미사일방어여단(2여단)의 김민찬 예비역 병장, 최진혁·채



명주·최준철 병장으로 구성된 AirForce팀(에어포스팀)은 체육·문화 부문을 수상했다. 협력 부문은 공군 대전사격장과 관련된 인근 지역주민 민원에 적극 개입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끌어내는 데 일조한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가 받았다. 특별 부문은 공군 부사관 출신으로 10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쾌척한 부영 이준근 회장이 수상했다.//

공군사관학교 기념관 개관

공군사관학교(공사)가 2월 21일 공사 역사와 생도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념관을 개관했다. 공사 기념관은 역사뿐만 아니라 생도 교육·훈련 전반, 생도 자치생활 등까지 총망라해 소개하는 공간이다. △1949년 공사 창설과 진해·서울·청주 캠퍼스 시기를 소개하는 '역사실' △입학, 교육·훈련 과정, 생도 생활관 등을 소개하는 '문화실' △비행 시뮬레이터 등을 조종해볼 수 있는 '체험실' △사관학교 영상 자료를 시청할 수 있는 '영상실' 등으로 구성됐다.문화실에는 공사 개교 100주년인 2050년대를 준비해 '공사 비전 2050' 내용도 전시했다.



공사 비전은 '정예 우주공군의 시작, 초일류 공군사관학교'와 사관생도가 공군의 힘이자 미래라는 뜻의 구호 'Cadet Power! Cadet Future!'다.//

2025 공군정책설명회

공군은 1월16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2025년 예비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정책설명회는 예비역을 대상으로 2025년 공군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현역과 예비역 간의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이계훈 공군전우회장은 "오늘 정책설명회를 듣고 우리 공군이 믿음직한 첨단 공군으로 성장한 모습에 매우 기쁘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며, 현역장병은 물론 공군을 거쳐가신 모든 공군인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



다"고 하면서 "추억은 기억보다 강하다고 하며 오늘 많은 추억담을 나누시고 강한 공군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자고" 고 말했다.//

美 전략폭격기 B-1B 출격 한미 연합공중훈련 시행

한미가 2월20일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전개한 가운데 주요 항공전력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했다.

국방부는 이날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국 전략폭격기 전개하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시행했다"며 "훈련에는 우리 공군 F-35A·F-15K, 미 공군 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현



시하고,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장호근 회원, 미 해군의 한국전쟁 항공작전 출간



장호근 회원[예 소장, 공사 17기, 전 공군 협회 연구위원회(현, 항공우주력연구원 초대 위원장)]이 현역 때 조종사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근 '미 해군의 한국전쟁 항공작전: 미 해군해병대 전투기의 공대지 항공작전을 중심으로'를 출간했다. 이 책은 공군 예비역이 왜 해군작전을 다루었나 하는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해, 군사사학(military history)을 전공한 육군 예비역 국방대 명예교수와 전, 해군사관학교 해전사 교수의 철저한 감수를 거쳤다. 지금까지 미 공군이 주도한 한국전쟁의 항공작전에 대해서 여러 번역물에 많이 포

함은 되어 있었으나, 한국전쟁 기간에 일본에 기지를 두고 순차적으로 한국 해역에 참전한 17대의 미 항공모함, 6척의 영국 함모, 1척의 호주 함모의 활약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 책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의 항공모함 전개 과정, 부산방어선, 인천상륙작전, 장진호철수작전에서의 미 해군·해병대의 근접 항공지원작전, 그리고 전선 교착과 휴전협상 개시 이후 미 공군·해군·해병대 전투기의 합동 후방차단작전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에도 우리 군의 당면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도 있는, 한국전쟁 개전 당시 미 해·공군의 합동작전의 문제점, 즉 합동성(Jointness) 결여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영하 회원, 국가발전공로 대상 등 5개분야 수상



본회 이영하 회원(예 중장, 공사22기, 전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장)이 1월 7일 한국, 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유명작가 초대전에서 수교문학상을 수상하고 1월 14일에는 적극적인 사회활동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표

창장을 받았다. 그리고 2월 21일에는 국제인류평화봉사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한 국가공헌대상 시상식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국가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3월 21일에는 신한뉴스 창간 7주년 기념식에서 "2025 신한국인대상 시상식"에서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수상했으며, 3월 25일에는 (사)한국재능기부협회 주관의 대한민국재능문화예술대상을 수상했다.//

공군전우회 '자랑스런공군인상'에 이종근 ROKAFIS 회장



올해 공군전우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런 공군인상은 공군전우회 산하단체인 공군인터넷전우회(ROKAFIS) 이종근 회장(부영그룹 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군 순직 조종사 유족과 장병 장학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0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쾌척한바 있고, 격오지 부대 장병들이 이용하는 체력단련실 환경 개선을 위해 10억여 원을 전달하는 등 공군 장병에 대한 아낌 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왔다.

2017년에는 부영그룹이 방공관제사령부와 1사 1병영 협약을 체결하고, 7년 넘게 공군 장병들의 처우·복지 개선에 동참하고 있다. 1사 1병영 운동은 군 부대와 기업이 맺는 일대일 자매결연으로 병영체험, 취업상담, 특강 지원 등의 교류 활동을 이어가는 국방부 추진 사업이다.//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부대 위문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회장 김진홍)는 1월 18일 계룡스파텔에서 약 6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앞서 자랑스런동문상 시상, 공군전우회장 공로표창장을 수여하였으며, 본 행사에는 2024년 수지결산, 회칙 개정,

2025년도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1월 23일에는 격오지 부대인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8785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10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공군전공상유공자회, 2025년도 정기총회



공군전공상유공자회(회장 박찬테)는 3월 13일 공군호텔에서 공군본부 전직지원과장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4년도 경과보고와 결산안 그리고 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공군ROTC장교회, 학군장교 임관축하 학군단 창설식 참석

공군ROTC장교회 김석찬 회장 등 임원진은 1월 25일 학군52기 임관축하행사를 위해 교육사를 방문하여 환담, 격려금 및 위문품을 전달했다.

그리고 2월 18일 경운대, 2월 20일 백석대, 한경대, 2월 24일 청주대학교 학군단창설식에 각각 참석하였으며, 2월 28일에는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거행된 학군장교 합동임관식에 참석하여 공군학군장교 146명의 임관을 축하해주었다.

그리고 3월 6일에는 학군교장이 공군



ROTC장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임원진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공군학사장교회,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사단법인 공군학사장교회는 3월 26일 공군호텔에서 창립 26주년 기념행사를 겸한 2025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행사를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도 재무제표, 2025년도 사업계획/예산안 및 임원 선임안을 의결하고, 창립 26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어 회장 이취임식에는 서영득 회장의 이임사, 신임 최병채(예 중위, 학사 80기, 인카금융서비스주식회사 대표이사)회장의 취임사 후 만찬 및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신임 최 회장은 "공군학사장교 출신 예비역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



문성을 바탕으로 현역장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교회가 친목단체를 넘어 사회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부

광주지부(지부장 손정문)는 3월 20일 광주기지 체력 단련장에서 3월 월례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회원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참석자 모두는 골프동호회가 광주지부 발전에 적극협조하기로 결의 했다.//



강릉지회

강릉지회는 3월 18일 정기 월례회 개최 및 지회장 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신임 최원규 지회장은 “회원 확대와 지역사회 보탬이 되는 활동 등을 전개하는 등 지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성남지회

성남지회 (박문석) 회장단 10명은 2월 4일 지역 인근 공군부대를 방문하여 환담을 나누고 부대 발전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그리고 3월 21일에는 회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4분기 정기 모임을 갖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방안을 나누었으며, 박 지회장은 “공군 인으로서 금지와 자부심을 갖고 상호간의 소통과 단결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평택지회

평택지회(지회장 왕관현)는 회원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신입회원 2명을 영입하여 축하 해 주었으며, 왕 지회장은 “지회 발전을 위해 회원 확충을 위해 모든 회원들이 더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워싱턴지회

워싱턴지회(회장 한수웅)는 1월 25일 토버지니아 소재 중미반점점에서 새해 첫 모임을 갖고 금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지회원들과 함께 친목을 도모했다.//



제주지부

제주지부는 3월 6일 지부 임원진 위주의 회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기총회 및 지회장 취임행사를 가졌다.
총회는 결산보고, 예산안 승인, 지부장 취임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새로 취임한 강형근 지부장은 중앙회장의 임명장을 임영준 지부 고문으로부터 전수받았다.
강 지부장은 “지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임원진과 함께 지부 회원 확대와 화합과 발전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천지회

사천지회(지회장 박갑용)는 2월14일 30여명의 정회원과 부녀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원재구 감사와 김순일 이사에 게 중앙회장의 공로상을 수여했다. 이날 회의는 2024년 업무성과 보고에 이어 부의안건 심의 그리고 2025년 사업계획(안)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 지회장은 인사말에서 “특히 올해는 ‘사천방문의 해’와 ‘사천시 통합 30주년 기념의 해’를 맞아 우리회원들도 사천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사천미래의 먹거리인 ‘우주항공산업’ 조기정착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양평지회

양평지회(지회장 김수영)는 2월 20일 양평읍 소재식당에서 2월 신년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정기모임에는 지회고문과 회원, 인근 공군부대장과 주임원사가 참석했으며, 2024 년도 회비 사용내역 및 회원 명부를 배포 하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했다. 김 회장은 “을사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정기모임 외에도 지회사무실에 오셔서 차한잔 하는 여유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지회

전주지회는 1월 20일 2025년도 정기총회 및 월례회를 개최하여 임기 만료된 오청수 지회장 이임에 따라 신임 최석수 지회장 인준 및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최 지회장은 “회원 확대 및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을 통한 지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리고 3월 22일 전주남부시장 전주천변 및 주차장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하여 공군전우회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美 트럼프 재등장과 대한민국안보

최명상 (예 준장, 공사15기, 공군대총장, Sorbonne 국제정치학 박사)



미국 우선 주의 (MAGA)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47대 대통령 재취임으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를 리드해 온 도덕적 가치나 인종과 성별, 종교 등의 차별을 배격하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과는 거리가 멀다. 전통적인 미국적 가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주한미군 감축, 한미무역협정무효와 같은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가능성도 있다. 국제질서가 어떻게 바뀔지? 관세전쟁이 일어날까 우려된다. 미국 역대 대통령의 대외정책과 한미관계를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며 대한민국안보위한 대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1776년 영국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독립혁명전쟁과 건국헌법논쟁으로 1789년에야 연방주의자인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대외정책은 1823년 제5대 제임스 먼로에 이르러 고립주의적인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으로 나타났다. 유럽열강의 간섭을 배제한 국가주의(Nationalism)로 아메리카대륙의 중심국가가 됐다. 1882년 조미(朝美)수교로 한미관계가 시작됐다. 쿠바의 독립을 빌미로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필리핀까지 차지했다. 당시 아시아지역의 강자였던 일본과 1905년 태프트-가스라 밀약으로 일제의 한반도 강점을 묵인한 제26대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강경외교정책(Big Stick Diplomacy)을 선언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강대국이 된 미국의 대통령 제28대 우드로 윌슨은 이상적인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정치학자로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민족자결주의와 국제연맹창설에 의한 세계평화를 주창했다. 우리민족은 일제식민에 항거하여 기미독립선언과 3.1운동을 전개했다. 제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세계적경제공황을 극복하고 히틀러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로 야기된 제2차 세계대전에 1941년 참전하여 승리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UN을 창설하여 세계경찰역할을 자임했다. 미국의 참전으로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1945년 38선이남의 한민족은 자유를 얻었다.

전후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로 세계정치질서를 주도하며 경제정책도 보호무역주의를 철폐하고 미국 달러를 세계기축화폐로 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의 자유무역주의를 택했다. 하지만 소련 스탈린이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라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동독과 북한의 공산 위성국화에 이어 그리스 튀르키예까지 공산화하려하자 제33대 해리 트루먼은 소련 봉쇄(Soviet Containment)정책인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을 1947년 발표했다.

미소대결의 냉전국제체제가 심화되면서 6·25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 발발했다. 미국의 도움으로 공산세력을 물리친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미동맹을 이룩했다.

초강대국인 미국도 두 전쟁을 치루면서 경제적 위기가 닥치자 1969년 등장한 제37대 리처드 닉슨은 괌 독트린(Guam Doctrine)으로 미국은 세계경찰역할을 포기하고 달러의 금본위제를 철폐하며 변동 환율제로 국제경제질서도 바꾸었다. 미중 수교로 중공을 국제무대로 끌어내어 소련을 견제했다.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시키자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했다.

제40대 로널드 레이건은 전임 지미 카터와 다르게 대소우위정책을 강행한 결과 트루먼 대통령 이래 지속된 소련봉쇄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1991년 소련이 70여년만에 붕괴됐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파스아메리카(Pax Americana)국제질서를 주도하면서 제42대 빌 클린튼은 1995년 GATT를 WTO(세계무역기구)로 통합, 세계무역자유화를 강화시켰는데 김영삼 정부가 제대로 대처 못해 IMF외환위기를 맞았다.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제43대 조지 부시는 신보수(Neocon)논리인 힘에 의한 평화 강행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야기했지만 오히려 수렁에 빠져 국론분열과 경제적 침체로 몰고 갔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한미전시작전권 전환 시도로 한미동맹이 균열됐다. 제44대 바락 오바마는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 위해 세계 G-7 경제체제를 G-20의 국제경제체제로 바꾸었다. 그러나 중공이 2012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G-2)으로 급부상하여 미국에 도전하자 제45대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로 2017년부터 미중 패권경쟁을 본격화했다. 제46대 조 바이든은 국제주의를 내세워 윤석열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에 이어 한미일3국 협력사무국을 출범시켰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미국은 국익에 따라 국가주의와 국제주의 그리고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적용해오다 이번에 미국우선 국가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건국 이래 추구해온 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와 시장자본주의경제체제 근본이념과 체제에는 변화가 없다.

대한민국이 추구해온 헌법가치와도 같다.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정글이나 다름없다. 소련을 붕괴시킨 레이건 처럼 미중 패권경쟁에서 중국공산당을 붕괴시키려는 트럼프에 동조하여야한다. 하루속히 친공좌파와 반국가세력을 척결하여 안미경중(安美經中)같은 한미동맹을 해치는 지난 정부의 우(愚)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트럼프 재등장의 미국 우선정책에서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안보를 지켜야 한다. 언제나 도전은 기회다. 우리는 전쟁패하에서도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위대한 국민이다. 국민이 직접선출한 대통령의 공정한 심판으로 정의롭게 탄핵정국을 극복하고 온 국민 단합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우뚝 세워야 한다.//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윤은기 (예 중위, 학사70기, 공군전우회 정책자문위원)



지난 3월 6일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한미연합훈련 중 공군전투기 오폭사고가 발생하였다. F-16 두대가 발사한 MK-82 폭탄 8발이 목표지점을 약 8Km 벗어난 지역에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원인은 전투기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하여 발생한 일이며, 모든 조사가 완료되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것이다. 피해 규모는 중경상자 19명, 입원치료자 총 7명, 건물전파 2건, 다수의 주택과 상가, 비닐하우스 축사, 차량등 총 152건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다. 피폭지점이 인구 밀집 지역이었다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유다. 지역주민들의 불안감과 공포심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언론에서도 어이없는 오폭 사고라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조종사들이 기강이 해이해져서 발생한 사고라는 비판도 있고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관하는 대규모 화력훈련이라 조종사들의 긴장도가 높아져서 사고가 났을 거라는 추측기사도 있다. SNS와 유튜브 방송에서도 오폭 사고에 대해 온갖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다.

공군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지금은 민항기 회사에서 일하는 K기장은 페이스 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숙달된 조종사 한명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비행과 공학적 지식을 가진 훈련 조종사에게 최소 3년의 훈련 기간과 수백 회의 실제 비행 그에 버금가는 횟수의 모의 비행이 필요하고 이런 훈련을 위해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조종사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 엉뚱한 해설을 하거나 유튜브 방송에서 음모론까지 나오는 걸 보고 참다못해 올린 글이다. 전투기 조종사는 양성하기도 어렵지만 조종 임무 수행은 더 어렵다. 전투기 조종은 매번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난도 임무다. 비행시간이 쌓였다고 편안하게 조종간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실제 전투가 아니라 평상시 기본임무 수행이나 훈련 중 순직자가 나오는 게 조종사의 숙명이다. 이걸 알면서도 조종사를 지원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 조종사는 호국영웅들이다.

2022년 1월 서산비행장에서 B소령이 조종하던 F-35가 동체 착륙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20Kg 가까운 독수리가 엔진에 빨려 들어간 것이 바퀴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었다. 조종사는 비상탈출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 비상탈출의 최종결심 권한은 조종사에 달려있다. 조종사는 기체를 바다로 향하게 하고 비상탈출하는 대신 목숨을 걸고 동체착륙을 감행하였다. 기체가 바다에 빠지면 자유진영이 보유한 최첨단 5세대 전투기가 통째로 적성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동체착륙은 완벽하였다. F-35 동체착륙은 세계최초의 기록이다. 이 조종사의 살신성인 애국심과 완벽한 조종기량은 이를 지켜본 미국 공군도 감탄하였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화제가 되었다.

동작동 국립현충원에는 ‘호국부자의 묘’가 있다.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다가 순직한 아버지와 아들의 묘소다. 아버지 박명렬 소령(공사26기)은 1984년 팀스피릿 훈련 중 충북 청원군 상공에서 순직하였다. 31세였다. 아들 박인철 대위(공사52기)는 2007년 7월 20일 야간요격 임무를 수행하다가 태안반도 서북쪽 해상에 추락하여 순직하였다. 27세 꽃다운 나이였다. 아들은 유해를 발견할 수 없어 비행 전 남긴 유품을 함께 묻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부자가 순직한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조종사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나라를 지키려면 강한 국방력을 유지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를 보라. 인접 강대국의 무력 침공으로 3년 동안 수많은 국민이 죽고 영토를 상실한 채 굴욕적 휴전을 강요당하고 있다. 국방안보 없이는 자유도 평화도 번영도 없다. 지금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고 있다. 현대전을 직접 체험하면서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우주력, 핵 추진 잠수함, 첨단 전투기 등 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 하고 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적 안보위협이다.

군은 끊임없이 강한 훈련을 해야 한다. 훈련 중 사고가 날 때마다 군 전체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전문성이나 정확한 정보 없이 시시비비를 다투는 것도 삼가야 할 일이다. 민심을 수습한다고 희생양을 찾는 것도 고쳐야 할 구태다.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더 좋은 시스템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군은 이를 통해 더욱 강해져야 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하였다. 첫째,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둘째,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 셋째,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 넷째,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저에게 있다. 특히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자신에게 있다는 말에서 장군다운 결기가 느껴진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도 전투기 조종사다. 평생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다. 지난 2월 19일에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을 시험비행조종사(test pilot)와 함께 탑승하여 직접 조종하였다. 4,500미터 상공에서 시속 1,000Km 이상으로 비행하면서 F-16과 합동으로 공중작전 능력을 검증하였다. 참모총장이 직접 시험비행에 나선 것은 최신 국산 전투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알리고 공군 조종사들과 장병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였다. KF-21은 내년부터 우리 공군에 실전 배치되어 앞으로 주력 기종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시험비행 조종사 이외에 KF-21을 조종한 사람은 이영수 총장이 최초다. 공군에서는 평소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군인정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평이 나왔다.

이번 전투기 오폭 사고는 초유의 일이다. 철저하게 원인을 찾아내서 완벽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잘못이 드러난 사람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처벌하고 징계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군을 더 강하게 하는 일이다. 국민이 군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